

退溪의 自然觀**

劉 明 鍾*

• 目 次 •

I. 머리말	III. 理와 氣의 관계
II. 자연과 인간	1) 理生氣說
1) 「太極圖」와 「天命新圖」	2) 動靜의 問題
2) 「西銘圖」	3) 理氣의 渾淪과 分開
3) 宇宙에 있어서 人間の 자리	IV. 맺음말

I. 머리말

퇴계의 자연관, 곧 자연철학을 『聖學十圖』의 「太極圖」와 「圖說」 및 「西銘圖」와 「天命新圖」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太極圖說」은 자연과 인간을 포함해서 太極·陰陽·五行·男女·萬物의 순차로 생성된 것을 말했고, 「西銘圖」는 天地乾坤을 인간의 부모라고 했으며, 인체에 의하여 「天地萬物과 一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天命新圖」는 「天圓地方」한 天地 가운데서 인간은 「頭圓足方」으로 天地를 상징하며 天地 사이에 「平正直立」하였다고 했으나, 동물은 橫生하였고 식물은 逆生했다고 차이점을 밝혔다. 결국 퇴계학은 주자학처럼 인간학이 중심으로 된 까닭에, 천지자연과 인간의 공통적인 존재근거와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밝혔다고 하겠

* 원광대 동양종교학과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75호·제76호(1992) 게재논문

다.

II. 自然과 人間

朱子와 퇴계는 「太極圖」 및 「圖說」에서 「無極而太極」을 본체로 해서 天地陰陽이 분립되고 陰陽의 變合으로 五行이 되니 陰陽, 五行의 七을 재료로 해서 만물이 생성된다고 하였다. 곧 自然(天地, 萬物)은 氣(陰陽)와 質(五行)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1) 「太極圖」와 「天命新圖」

「太極圖」는 無極而太極·陰陽·五行·男女·萬物이라는 五段階로 자연만물이 생성된다는 생성론적 우주관이며 퇴계의 「天命新圖」는 그것을 一圓化한 것이다.

無極而太極과 陰陽, 五行이란 본래 시간적인 선후의 시차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五行은 一陰陽이요, 陰陽은 一太極이며, 太極은 본래 無極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세계는 太極一圓이라는 것이다. 퇴계가 「天命圖說後敍」에서 客이 “周子圖는 太極으로부터 五行까지 三層으로 되며, 氣化·形化的 또 二層이 되는데 이 「天命圖」는 단지 한 덩어리일 뿐이니, 어찌 같다고 하는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퇴계는

진실로 太極·理氣·五行의 三層이 있고, 氣化·形화가 三者 外에서 나와서 따로 二層이 있다고 하는가? 五行은 一陰陽이요, 陰陽은 一太極이지만 二가 化하여 一이 되는 까닭에 渾淪하여 말한다면 단지 一일 뿐이다. 周子が 圖를 그려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不得不 분석하여 五段階로 한 것뿐이다.¹⁾

1) 滉曰 客誠謂太極二五有三層耶? 氣化形化 又出於三層之外 而別有二層耶? 氣化形化 又出於三層之外 而別有二層耶?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而二之化 卽一之爲也 故渾淪言之 只一而已 顧周子爲圖以示人不得不分 而爲五爾(退溪先生

라고 하였다. 「太極圖」는 五層으로 分開하였으니 分開說한 것이고, 「天命新圖」는 그것을 一元化하여 渾淪化하였으니 渾淪說이다. 分開說한 「太極圖」와 渾淪說한 「天命新圖」는 모두 함께 理氣妙凝의 우주론이다.

만약에 周子가 太極을 一氣라고 하였다면 一氣·陰陽·五行·萬物로서 천지자연이 생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朱子가 「無極而太極」을 「無形有理」라 하고 「太極」을 「理」라고 한 까닭에, 퇴계는 太極을 理體로 해석하였으니 理體를 本體로 삼고 陰陽, 五行 등 七材料를 基體로 삼아 천지자연, 만물과 인간이 造化되었다고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太極圖」 및 「圖說」은 우주생성론이라면 퇴계의 「天命新圖」는 天圓地方한 우주 속에 頭圓足方한 인간이 平正直立 했고, 橫生한 禽獸와 逆生한 草木을 포괄적으로 圖化한 우주구조론이라고 하겠다. 생성론과 구조론이 함께 퇴계의 우주론을 형성했던 것이다.

2) 「西銘圖」

이 그림은 張子の 西銘을 圖化한 것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西銘圖」에 上圖와 下圖가 있는데 上圖는 오로지 理一分殊의 세계관을 밝힌 것이고, 下圖는 하늘을 섬기는 도리를 밝힌 것이다. 乾坤天地의 「理一」에서 「民吾同胞, 物吾與也」라고 하는 인간과 만물의 分殊가 있게 되고, 大君은 吾父母의 宗子요 그 大臣은 宗子の 家相이라고 하는 君臣分殊와 長幼의 分殊, 聖賢의 分殊, 貴賤의 分殊를 도식화했으나 결국 「理歸于一」이라고 하여 分殊의 各理는 理一의 理로 통일된다고 하였으니 인간과 萬物萬事의 分殊는 궁극적으로 理一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까닭에 “雙峰饒氏가 西銘의 前一節은 사람이 천지자연의 아들임을 밝혔고, 後一節은 사람이 천지를 섬기는 것을 말하였으니 마치 아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 했다.”²⁾고 한 것을 인용한

文集 卷41, 天命圖說後敘, 附圖)

2) 雙峰饒氏曰 西銘前一節 明人爲天地之子 後一節 言人事天地 當如子之事父母也 (退溪先生文集 卷7, 第二西銘圖)

「西銘圖」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圖化하여 인간은 천지자연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理一分殊란 다시 말하면 唯一한 理體가 인간과 자연의 존재근거이나 그것을 초월했고, 分殊의 理는 자연과 인간에게 각기 내재하여 그 本質, 條理가 된다. 즉 理는 초월적이면서 또 내재적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理一과 分殊로 요약하였다.

3) 宇宙에 있어서 人間의 자리

퇴계의 「天命新圖」는 天圓地方한 우주 내에서 인간은 「頭圓足方」한 존재로서 天圓과 地方을 상징했고, 또 「平正直立」했으니 天地의 正氣와 全通, 直通한 까닭에 靈長이 되었다고 했다. 인간만은 우주간에 「平正直立」한 상태 때문에 두뇌가 커지고, 그 까닭에 엄지손가락이 자유자재롭게 작용하여 文化를 창조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平正直立」 때문에 文化를 환경으로 하는 文化적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禽獸는 橫生한 까닭에 或通一路한 理를 갖게 되어 偏된 성품을 지니게 되었으며, 초목식물은 逆生한 까닭에 理가 全塞하여 不通하게 되는 차등이 생겼다고 圖化하고 있다. 그리고 「天命新圖」가 天圓地方한 것 중, 天命圈의 「理妙氣凝」으로부터 시작한 까닭은 稟生 이후 현상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無極而太極, 혹은 太極의 根源性을 무시한 것은 아니므로, 퇴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五行, 陰陽 이상은 天圓 一圈에 구비되었으니 太極의 無聲無臭는 또 그럴 필요가 없지만 깊고 쉬지 않는 것이(理體) 그 중에 항존한다.³⁾

고 했던 까닭이다. 天圓이 곧 太極이라는 것이니 역시 太極과 陰陽, 五行, 萬物이라는 생성관이 이 우주구조론에 伏在하고 있다.

3) 其自五行陰陽以上 則固具於天圓一圈 而太極之無聲無臭 又不待摹寫而亘於穆不已 於其之中矣(退溪全書 卷58, 天命圖後跋)

그런데 자연만물을 생성하는 基體로서 氣(陰陽)와 質(五行)이 있으니 그 氣와 質의 관계와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天에서 氣를 받으니 天의 氣는 淸濁이 있고 質은 地에서 받으니 地에는 粹駁이 있다.(天命圖說)

氣의 淸濁과 質의 粹駁으로 말미암아 자연은 형성되는데, 자연의 기초에는 무형한 ENERGY가 유형한 질량과 서로 결합되어 있다.

陰陽, 五行의 氣가 서로 번갈아서 운행하고 升降往來하여 번잡하게 섞였으니 그 단서는 千萬이다. 그 氣의 妙凝으로 만물이 생성될 때 만나는 氣에 스스로 純粹한 것과 濁駁한 것, 邪한 것과 正한 것의 고르지 못한 것이 없을 수 없다.⁴⁾

따라서 陰陽은 氣이고 五行은 質이라 하고, 또한 “氣는 陽이요 質은 陰이다.”⁵⁾라고 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ENERGY와 질량과의 관계를 말한 것이다.

“氣는 俗言의 氣運과 같고, 質은 俗言의 形質과 같다. 인간과 만물이 생을 받는 시초에 氣는 質을 형성하나, 生이 있고 나면 氣는 質 가운데서 운행한다.”⁶⁾고 하여 氣와 質 서로의 관계와 그 상호작용에 의하여 形質이 凝聚되어 만물자연을 구성하게 된다. 만물과 인간은 이러한 氣質, 形質에 의하여 형체화되었으나, 인간의 淸하고 粹한 기질을 얻는 자는 上智가 되고, 淸하나 駁하고 濁하나 雜한 기질을 얻는 자는 中人이 되며, 濁하고 駁한 기질을 얻으면 下愚가 된다고 하여 기질의 차이에 의하여 上智·中人·下愚가 결정된다고 했다.(天命圖說)

4) 二五之氣 運行交錯 升降往來 紛綸雜糅 其端千萬 其於妙凝 成物之際 所值之氣 自不能無純駁邪正之不齊(退溪集 卷54 答趙起伯大學問目)

5) 氣陽而質陰(答李宏仲)

6) 氣如俗言氣運 質如俗言形質 人物稟生之初 氣以成質 有生之後 氣行於質之中[氣陽而質陰 氣以知 質以行也](退溪集 卷51 答李宏仲)

Ⅲ. 理와 氣의 關係

1) 理生氣說

理로부터 氣가 발생한다는 것이 주자나 퇴계의 理生氣論이다.

자연을 형성하는 理氣와 五行의 혼합체인 재료는 무형의 理에 근거하여 발생한다. 그들의 「理生氣」란 「理가 氣를 生出한다.」하기 보다는 유형적 근거는 무형이니, 有는 無에서, 無는 有로, 자연의 근원에는 무형한 ENERGY로 충만되어 있다. 氣는 「無形有理」한 理를 근거로 해서 발생한다. 퇴계의 다음과 같은 설명이 그것이다.

朱子께서 ‘氣가 흩어지고 나면 이미 變化하여 없어진다. 그러나 理에 근거하여 날로 발생하는 것이 진실로 浩然하여 다함이 없다.’고 하였다. 그 날로 운행하여 다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⁷⁾

고 하였으니, 「理生氣」란 무형한 理를 근거로 하는 氣의 충만을 「根於理而日生者」라고 한 것이다. 다시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 자연의 근원인 무형한 理世界와 유형한 자연세계는 연속되어 있다. 그것을 “그 氣가 理에 근거하여 날로 발생하는 것이 浩然하여 다함이 없다”⁸⁾ 고 한 것이다. 또한 「其氣之根於理而日生者」라고 했으니 그 줄인 말이 「理生氣也」이다. 氣의 발생은 무형한 理에 근거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해는 퇴계에서 끝나지 않고 晚悔 權得己(1570~1622)라는 光海朝의 節士 역시 “이 氣는 理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넓고 넓게 충만하여서 중지하지 아니하며, 浩然하게 流行하여 정체가 없으니, 그 작용이 다만 위대할 뿐일까?”⁹⁾라고 하였으니 「此氣之根於理

7) 朱子嘗曰 氣之已散者 既化而無有矣 而根於理而日生者 固浩然而不窮 既曰日生而無窮 則其日運而不窮可知矣(退溪全書, 答鄭子中別紙)

8) 其氣之根於理而日生者 浩然而無窮(退溪全書 卷41, 金而精別紙)

9) 此氣之根於理而日生者 亦莫不洋洋充滿 而不息 浩然流行無滯 其爲用 顧不大哉

而生者」라고 하는 理生氣說이 계승되었다.

2) 動靜의 問題

주자가 「理의 動靜이다」하기도 하고, 또 「氣의 動靜이다」하기도 하였으므로 늘 우리를 당황하게 하였다. 퇴계 역시 理動과 氣動을 인정하였으니 雙動인가? 논란이 될 법한 문제이다. 그러나 퇴계는 주자의 「理有 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氣何自而有動靜乎」라고 한 것을 근거로 하여 理는 動靜의 원인이고 氣는 動靜하는 자체라고 이해하였다. 氣가 動靜하려고 한다면 動靜하는 원리가 없을 수 없다. 까닭에 動靜에서 그 원리와 動靜者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理에 動靜이 있다.」고 한 것은 理가 氣처럼 動靜한다는 것은 아니다. 퇴계가 「動靜者 氣也 所以動靜者 理也 聖人純於理 故靜以御動 而氣命於理」(靜齋記)라고 하여 動靜하는 所以가 理라고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

3) 理氣의 渾淪과 剔撥

理氣가 渾淪한다는 것을 퇴계는 兼理氣라고 하였으며, 그것은 形而下의 자연세계이다. 다시 말하면 理가 氣에 내재한다(理在氣中)는 것이며 자연에 충만한 氣에 내재하는 理라는 것이다.

그러나 兼理氣한 理氣渾淪의 자연세계에서 그 본질을 剔撥하면 唯一한 理가 드러난다. 이러한 理體를 唯一한 존재근거로 삼고 자연은 理氣의 兼合, 渾淪世界라고 파악하는 것을 主理的 理氣二元論의 자연관, 우주관이라고 하게 되었다.

퇴계는 또 形而上下, 곧 理體의 形而上과 理氣兼·合의 形而下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對象, 形氣가 있고서 우주에 충만한 것은 器이다. 그러나 그에게 구비된 理는 곧 道이다. 道는 器를 떠나지 않는다. 그 形象이 있는 것

(晩悔集, 執事策)

으로 말하는 까닭에 形而下라고 한다. 太極은 陰陽 가운데 있으나 陰陽과 혼잡하지 아니하므로 形而上이라고 한다. 陰陽은 太極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대로 形氣이니 形而下라고 한다. 그러나 造化에 나아가 본다면 太極은 形而上이 되고 陰陽은 形而下가 된다.¹⁰⁾

고 하였으며 形而上·下를 말한다면, “무릇 形而上은 모두 太極의 理이고, 무릇 形而下는 모두 陰陽의 器이다.”¹¹⁾라고 하였다. 氣에 의하여 형성된 개체(氣)의 세계는 形而下, 즉 자연세계이니 理가 條理로서 氣에 내재하는 이른바 理氣渾淪의 세계이고, 理氣渾淪의 세계에서 그 본원을 剔撥한다면 「理」, 즉 유일한 원리가 挑出되니 그것이 형이상(形而上)의 세계, 자연의 본원의 세계이다. 理氣를 渾淪히 말하면, 「天下에 理 없는 氣 없고, 氣 없는 理 없다.」고 하거나, 혹은 「理在氣中」 또 兼理氣로 설명되나, “理의 本體는 氣에 얽매이지 않고 物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까닭에 物에 내재하는 것은 조금 편벽되지만 그 渾淪한 것의 大全은 한 쪽이 떨어지지 않는다.”¹²⁾고 한 것은 形而上의 理體를 말한 것이며, 理體는 理一이다. 그러나 形而下의 理用은 分殊의 理이다. 그러니 理一인 體는 氣와 자연을 초월했지만 分殊의 理用은 氣와 자연에 내재하여 각기의 條理가 된다.

“物上에서 본다면 理氣는 渾淪하여 分開할 수 없으나…만약에 理上에서 본다면 비록 物이 없더라도 이미 物의 理는 있었다. 그러나 또한 단지 理만 있을 뿐이요, 실로 이 物은 없었다.”¹³⁾고 하였는데, 物上(현상계)에서 본다면 理氣는 渾淪하니 兼理氣했지만 理上看(理法上)으로는

10) 凡有貌象形氣 而盈六合之內者 皆器也 而其所具之理卽道也 道不離器 而其有形象可言 故謂之形而下也 太極在陰陽中 不雜乎陰陽 故云上耳 陰陽不外於太極 而依舊是形氣 故云下耳 然就造化而看 太極爲形而上 陰陽爲形而下(答李宏仲)

11) 凡形而上 皆太極之理 凡形而下 皆陰陽之器也(同上)

12) 理之爲體 不於氣 不局於物 故不以在物者之小偏而虧 其渾淪者之大全也(答李宏中)

13) 在物上看 則二物渾淪不可分開…若理上看 則雖未有物 而已有物之理 然亦但有其理而已 未嘗實有是物也(非理氣爲一物辯證)

分開되니 理의 초월성이 剔撥된다. 理는 形而下(現象)界에서 物에 내재하나 形而上에서는 氣와 자연을 초월하여 自存한다.

그러므로 ① 理는 氣, 質, 器 등 자연만물에 내재하여 본질, 조리, 질서라는 理用이 되나, 또 理의 主宰性和 能然性を 인정하는 입장이 퇴계이다. ② 각기의 본질, 조리를 근거지워줄 유일한 원리가 없을 수 없으니 그것을 超越的 理體라고 分開하여 無對, 尊貴한 성격을 부여하고 절대화하였다. ③ 理는 사회도덕윤리의 최고 가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理란 「所以然之故」일 뿐만 아니라 「所當然之則」이라고 하여 가치의 최고준칙으로 하였다.

IV. 맺음말

「太極圖」는 우주의 생성론이며, 「天命新圖」는 구조론이다. 「太極圖」는 分開說한 까닭에 五層이 되었고, 「天命新圖」는 渾淪說하여 一圓化하였다. 우주를 논할 때, 分開說하고 渾淪說해야만 분명하게 전체가 파악된다고 하겠으며, 또 「西銘圖」는 인간은 자연의 아들이라고 설명한 것이요, 「天命新圖」는 天地中에서 頭圓足方으로 天地를 상징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했으며, 자연구성의 재료인 氣와 質의 관계 및 氣의 발생과 동정 운동을 개략하여 퇴계의 자연관에 관한 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퇴계의 자연관은 分開論的 「太極圖說」과 渾淪論的 「天命新圖」 및 「說」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渾淪說과 分開說을 兼用하는 논리성으로 기초되어 있다.